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 CEO들을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게 해 주는 손홍락 대표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인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신원 SKC 대표이사 회장

이 책의 핵심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CEO들의 강점을 두루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는 면에서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자를 소상하게 제시할 것이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한 시대를 풍미한 CEO의 삶과 경영철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 깊이와 넓이가 광대무변하기 때문이다. 손홍락 대표의 열정과 잘 삭힌 글 솜씨에 박수를 보낸다.

김홍신 소설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CEO들이 창업과 기업 발전의 최전방에서 굳센 의지와 끈기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생생한 그들의 육성과 함께 담겨 읽는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봉 디자이너

박은관 사몬느 회장
김창룡 한국표준협회 회장
조서윤 다원디자인 대표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이현구 까사미아 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
정연진 일동제약 사장
김재환 린스튜디오 회장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김태영 필립스전자 사장
박창일 건양대병원 의료원장
이중명 에머슨퍼시픽그룹 회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사장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봉우 벨파스 사장

값 29,000원

03320

한국 CEO 대탐험 3

손홍락 지음

CEO피트

한국 CEO 대탐험 3

The Great 20 CEOs in Korea

손홍락 지음

김효준 · 박은관 · 김창룡 · 조서윤 · 이현구 · 박인주 · 우창록 · 박상환 · 이영관 · 정연진 · 어윤대 · 김재환 · 강영 · 이봉우 · 박창일 · 이중명 · 한경희 · 윤은기 · 강태선

이 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CEO들의 면면을 널리 알림으로써 행여 느슨해지는 성장고삐를 팽팽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다. 힘이 부치거나 의해진 기업인이나 예비 기업인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용기를 북돋워 주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햇살이 적다고 응달에 꽃이 없으랴

다원디자인

조서윤 대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며 정상에 우뚝 선 여성은 그 과정의 험난함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존경을 받는다.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면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는 고사하고 인권 회복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2012년 10월 파키스탄에서는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탈레반의 총격을 받았고,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 이익'을 이유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더 높은 입학 자격시험 점수를 요구해 비난이 들끓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 앞의 장벽은 아직 여전하다. 많은 남성들이 아직도 여성은 집안일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일부 여성들도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풍토에서 '불리한 게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1985 Ohio University (USA) 인테리어 디자인 학사 취득/ 1986 ISP Competition, Edward Department Store/ 아동 백화점 부분 1등상 수상/ 1987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인테리어 디자인 석사 취득/ 1987 IBD Portfolios, Review Competition, Men's Clothing Shop 부분 1등상 수상/ 1989 Professional Office Design Competition, Reception 부분 1등상 수상/ 2003 매일경제 제 10회 지식오피스 대상 대기업부문 우수상 수상/ 2005 명인명가상 수상/ / 2009 한국 FM학회 FM대상 리모델링부문 대상 수상/ 2011 한국 FM학회 FM대상 리모델링부문 대상 수상/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유공자 공로패 수여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다. 여성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가는 확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고, 이는 공직과 공기업을 포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의 혐의가 짙지만, 공직 임명 환경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쿼터제마저 없었다면 그 상황은 더 참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를 선도하는 다원디자인 조서윤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으며, 그녀를 향한 시선도 '경외감'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품질우선 원칙이 성공의 비결

1995년 직원 세 명과 자본금 1억 원의 단촐한 규모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 뛰어든 조 대표는 타고난 디자이너로서의 자질과 날선 경영감각으로 꾸준히 입지를 키워 현재 외국계 멀티 내셔널 컴퍼니(multi-national company)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오피스 공간 전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조서윤 대표는 고객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순수한 마인드로 치열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경쟁을 뚫었다

첫해에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다원디자인은 이를 기반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해서 2005년에는 연평균 매출액 520억 원, 2012년에는 1,386억 원을 기록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다. 현재 호텔과 리테일 분야로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다원디자인의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회사의 모든 역량을 오피스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에 집중해 왔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쌓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수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상업 공간, 주거 공간과 리모델링까지 영역을 넓혔죠.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과 상업 공간의 프로젝트 비율이 50대 50에 이르렀어요."

현재 태라씨엔이, 가림티앤디를 포함한 3개 회사의 그룹으로 성장한 다원디자인이 경쟁이 치열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제대로 맞출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경쟁사보다 월등한 디자인, 공사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고객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순수한 마인드로 '고객에 대한 가치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 적중했다. 가치 서비스란 각 분야의 숙련된 전문인들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단계는 물론 컬러 코디네이션, 전기, 설비, 엔지니어링,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비용 산출(Quantity Survey)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회사와 고객 모두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회사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라며 연평균 매출 1,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조 대표는 요목조

목 알기 쉽게 설명한다.

다원디자인의 세심한 서비스를 한번 맛본 고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원히 다원의 팬으로 남는다. "다원을 찾았던 고객 중 60% 이상이 다원을 재방문 한다는 점에서 저희도 무척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고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드는 벅찬 순간이지요."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다원디자인을 업계 최고로 인정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하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고,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눈썰미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직원 230여 명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수주한 프로젝트의 디자인에 직접 관여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뛰는 이유가 바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실력 때문이었던 것.

그녀가 인테리어 디자인의 첫 번째 타깃으로 사무 공간을 생각한 것도 시장성을 고려했을 때 탁월한 안목이었다. 직장인들이라면 하루 최소한 여덟 시간 이상씩 머물게 되는 사무실은 주거 공간 만큼 중요해서 오피스 디자인의 시장성은 매우 밝다. 인테리어 투자에 적극적인 국내 다국적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 역시 다원디자인의 입지를 끌어올리는 데 매우 주효했다. 전체 프로젝트의 85% 이상이 이러한 다국적 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 대표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 대구시티센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2009년 스펀지 쇼핑몰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FM 학회에서 주는 FM 대상을 받은 것은 대표적인 예일 뿐, 조 사장의 디자인 철학의 전부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디자인의 경우 컬러에 대한 감각 못지않게 수학적인 논리가 필요해요.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진리, 명쾌하게 도출되는 결과가 바로 수학이죠. 최선을 다하면 시원하게 통쾌한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 수학과 디자인의 닮은 점이에요." 예로부터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에 수학자가 많은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설명하는 조 대표는 상업예술은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제대로 대입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회사

다원디자인을 성공으로 이끈 또 하나의 일등 공신에 대해 조 대표는 바로 유능한 직원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내세운다.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디자인 연구 개발에 몰두해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인 전문 기술은 경쟁 기업보다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다.

"전문성이란 직원들이 갖춘 맨파워에서 나온다고 봐요. 훌륭한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이 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직원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 대표는 앞으로 훌륭한 인적자산을 지닌 다원디자인을 지금처럼 단일 CEO제가 아닌 두세 명의 공동 CEO제 운영형태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몇 명 생각해 둔 직원이 있다"는 그의 말에서 직원들을 향한 그의 애정과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가 있다. '백그라운드' 없이 오로지 도전과 패기, 실력만으로 다원디자인을 키워낸 조 대표의 경험이 회사 경영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

이렇게 깨어 있는 마인드와 탁월한 실력을 갖춘 대표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고로 억눌리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발한 상상력이 나오는 법, 조 대표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어

쩌면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아닐지.

이외에도 조서윤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몸에 배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는 다른 효율적인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자율적인 협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조서윤 대표의 창업 초기 앳된 모습.

"대부분의 기업은 결재를 한 번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간과 노동력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타진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결정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횡적 조직이 자율적이면서 대화와 협의가 지속되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은 회사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일까? 다원디자인의 직원들은 조 대표 앞에서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조 대표 역시 "오늘 스타일 멋진데!", "땡큐!" 하며 쉽게 농담을 건넬 만큼 대표와 직원들의 사이가 상사와 부하직원이 아닌,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동등한 관계처럼

살갑게 느껴졌다.

"다원디자인을 창업했던 1995년은 IMF가 막 시작될 무렵이라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창업 초기,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도전

일에 뛰어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는 성격의 조 대표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새벽 별을 보고 퇴근하는 강행군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 년에 서너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일에 임하는 그녀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녀린 체구, 부드러운 이미지, 세련된 외모 속에 가려진 강한 추진력은 일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조 대표의 근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설립 당시 불어 닥친 IMF 한파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조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일념으로 해외기업들의 국내 진출 붐을 타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무실 인테리어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은 대부분 사무실 인테리어를 통해 회사의 문화와 철학, 제품 특성, 지향하는 목표 등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런 고객의 니즈를 조 대표는 정확히 읽어내 인테리어에 반영했다.

"그 당시엔 회사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챙겨 들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했어요.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그러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어떤 회사가 국내에 들어오는지 파악하고는 연락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매우 고되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도 조 대표의 얼굴에는 그

늘이 생기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룬 자의 여유이기도 하겠지만, 아직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과도 같은 만남

사실 조 대표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이공계 학생이었다.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지망했지만 아쉽게도 낙방을 했고, 재수를 해서 서울대에 진학하라는 부모님의 권유를 마다하고 고집스럽게 화학과를 지망한 터였다.

하지만 '낭중지추(囊中之錐 : 재능이 출중한 사람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라고 했던가? 어느 날 조 대표의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한 화학과 교수가 공부도 잘해 장학생이었던 조 대표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해볼 것을 권유했다. 고집이 강해서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던 그녀였지만 '교수님'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고 왠지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한 것이 1982년이었다. 인테리어 업계와의 인연은 이렇듯 조 대표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제가 공부할 당시 미국도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오너가 되겠다는 꿈을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꿈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조 대표는 유학시절부터 마음속에 아로새겼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덧 꿈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었다.

미국 유학 생활 중 첫 출발은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시작했다. 이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학석사(M.S) 학위를 취득했다.

ISP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공모전에서 에드워드 백화점 아동 부분 1등, IBD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남성복 매장 부분 1등, 프로페셔널 오피스 디자인 공모전에서 리셉션 부분 1등이라는 화려한 수상경력은 그녀의 실력과 열정을 입증해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디자인 회사(Bass&Bass, Steven&Wilkinson, Keiser Associates 등)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미국 국가 공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위원회(NCIDQ)에서 시행하는 시험에도 합격해서 공인자격증을 획득했다.

"지나고 보니 10년이었지요,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일상이 너무 고되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상상하고 다짐하며 이겨냈지요."

1991년에 귀국한 후 현대건설에 근무했지만, 그녀의 도전정신은 4년만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고, '다원디자인'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합리적인 교육이 창의성을 낳는다

사업가 집안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응석받이로 자랐을 법도 하건만 어릴 때 주변에서 '애늙은이'라고 놀릴 정도로 조 대표는 여러모로 성숙했다고 회상한다. 아침 인사가 '밥 먹었어요?'일 정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시절, 자식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는 다른 집 부모와 달리 조 대표의 어머니는 '먹고 체하느니 그만 먹어라'고 말할 줄 아는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였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태어나셨으면 정말 큰 인물이 되셨을 거에요. 단 한 번도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고, 오히려 여성을 우위에 두시는 분이셨어요"라며 엄마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드러낸다. 조 대표의 도전정신과 합리성은 이렇듯 남달랐던 부모님

의 교육법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의 이사를 했다는 '맹모삼천지교'는 흔히 훌륭한 위인들을 키워낸, 자녀 교육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진 부모님에 비유된다. 아이들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맹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컫는데, 조 대표가 지금처럼 인테리어 업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깨어 있는 교육법'에 있었던 것.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 역시 어떤 희생도 마다않고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어요. 경직된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은 싫었고 뭐든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했거든요."

이렇듯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고집스러운 딸을 질책할 법도 하건만 조 대표의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늘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셨다. 그 덕에 자유로운 사고가 몸에 밴 조 대표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디자인에 한껏 발휘될 수 있지 않았을까?

사회적 나눔에도 각별한 관심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멘토로 삼을 만큼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신 이강래 교수님이세요. 본인의 영화로움이 아닌 남을 위해 사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이강래 교수는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대안교육기관이자 위기청소년 사회교육단체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맥지원)을 이끌어오고 있는 교육자다. 이념보다는 인간사랑, 종교에 대한 자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 이웃의 무지와 빈곤, 아픔을 함께 나누고, 봉사하자는 '최혜자(最惠者,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 가장 값진 것을 얻는다)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강래 교수가 이 교육원을 설립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옥고를 치른 이 교수는 광주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지급된 1992년 과거 운동권 선배들을 찾아가서 "보상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위기청소년 교육에 쓰자"고 설득했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합해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의 약 1만 2,000 평의 땅에 맥지원을 만들어 청소년 선도에 힘쓰고 있다.

조서윤 대표는 경직된 자세로 사진 찍는 걸 싫어하듯 직원들과의 관계도 편안한 파트너쉽을 좋아한다.

이 단체는 1997년 법인 등록 후 지금까지 위기청소년을 껴안기 위한 사회안전부콤운동 SSBC(Social Safety Business Community)과 한국위기청소년 예술 세라피 교육센터,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돕기 위한 가정형 Wee 센터, 미국교포 문제학생들을 위한 맥지 유학생 멘토, 맥지 청소년 치료영화제 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를 대표하는 CEO로서 국내외 내로라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강래 교수의 사회 활동이 유독 조 대표의 가슴에 와 닿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조 대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 대표의

은퇴 후 삶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건 단순히 필자만의 생각일까?

실제로 그녀는 2008년부터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개인적으로 친해지다 보면 사업적인 도움도 주시고는 하는데, 유독 딸을 가진 분들이 저를 보면 딸 생각이 나시는지 도움을 많이 주세요."

항상 웃는 낯인 조 대표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미소를 띠며 기꺼이 응하는 조 대표에게 "대표님은 NO 할 줄 모르시죠?"라고 물었더니 '우문현답'이 돌아온다. "NO를 쉽게 내뱉는 사람도 있나요? 그건 인격적인 문제에요."

일상에서 감동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과 인생, 그리고 아픔, 우리네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 해주는 토토와 알프레드의 이야기, '시네마 천국'. 엔리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우리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준 대표적인 영화이다.

토토가 처음으로 엘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토토와 알프레드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질주하는 모습, 극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장에 영사기를 비춰주던 알프레드의 미소, 중년이 된 토토가 알프레드의 유물인 키스신 필름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조 대표는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네마 천국을 무려 일곱 번씩이나 봤다고 고백한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조 대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일일이 챙겨볼 만큼 영화광은 아니지만 감동적인 영화는 몇 번씩이고 돌려서 볼 만큼 영화를 좋아한다. 가정을 가진 한 여자와 사진작가의 이루어질 수 없는 나흘 간의 사랑 이야기를 애절하고도 순수하게 그려낸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조 대표가 손꼽는 영화 중의 하나이다.

조서윤 대표는 합리적 사고와 동양적 미덕을 겸비한 여성 CEO로 꼽힌다.

"집에 들어가면 회사 일은 아예 잊어버려요. 에너지가 쭉 빠져서 아무 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거죠"라며 살며시 웃는 조 대표는 그래도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저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아들 생각 많이 안 해요."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많이 보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난감함을 표시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주저 없이 손꼽는 것을 보면 남들처럼 자식 사랑을 호들갑스럽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인 듯 항상 옆에 두고 일일이 간섭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모들보다는 조 대표의 방식이 아이의 성장에는 훨씬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조 대표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일까? 조 대표의 입가엔 항상 아련한 미소

가 서려 있다. 늘 감사하려는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와도 맞닿아 있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력(?)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

창의성 있는 기업문화 추구

현재 다원디자인은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선도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철저하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재방문 고객의 비율을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에서 오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앞으로 창의성 있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어 '진짜 향상된 실력'을 보여주려고 해요. 나아가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건설의 주역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온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들어 인테리어나 건축 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빨라지고 있다. 건축가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다른 시각을 통해 건물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에 대해 조 대표는 "이는 리노베이션 시장이 급부상하는 시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명확히 짚어낸다. 이러한 추세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실력으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선두 주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 회사에서 직급이나 연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달리 표현하면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한다는 의미인데,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끔은 뒷거래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주소이거늘, 이런 분위기에서 다원디자인을 업계의 리더로 키워낸 조 대표의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조 대표와 같은 훌륭한 소신을 지닌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피스 디자인의 초강자

조 대표는 23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라는 직함보다는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듣는다. 그래서인지 다원디자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디자인이라고 본인도 유쾌하게 인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표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조 대표는 디자인과 관리에 주력한다. 요즘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 샘플을 고르고 아이디어를 함께 연구한다. 뿐만 아니라 설계실 팀장들을 대동하고 수시로 해외 전시회를 돌며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읽는다. 냉정한 눈을 가진 고객들이 붙여준 '오피스 디자인의 최강자'라는 마켓 포지션은 대표의 이러한 열정에 답하는 고객들의 선물이다.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최고의 선(善)이란 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물과 같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부드럽지만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강인함을 가진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는 이 경구를 늘 마음에 새겨요."

조 대표는 오랜 유학 생활로 몸에 밴 합리적 사고와 동양적 미덕을 고루 갖춘 CEO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여성 디자이너 CEO로서도 유명하다.

"이젠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실을 다져갈 때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수익구조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기업문화도 생각하고, 또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좋은 회사'가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겠지요."